

언어문화
발상표현
발상원리
성어
반영
발상문화
발상사적
함수
한국어
한자
명명
조자

한국인과 한국어의 발상과 표현

박갑수

역락

한국인과 한국어의 발상과 표현

박 갑 수



역락

머리말

오랜 숙제를 마치게 되니 가슴이 후련하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일본에서 문체론(文體論)을 연구하고 돌아와 “국어의 발상”이란 강의를 하게 되었고 그 뒤 같은 제목의 책을 쓰기로 하였다. 그러나 커리큘럼이 바뀌어 강의를 하지 않게 되니 자연히 이 일은 소홀하게 되어 마음에 부담으로만 남게 되었다. 그러던 것을 정년을 하고, 숙제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어 “한국인과 한국어의 발상과 표현”을 출간하게 되니, 정말 40년 묵은 “체증”이 풀리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책의 대부분의 원고들이 지상에 발표하지 않은 새로운 글들이어서 다행스럽다.

발상(發想)은 몇 가지 다른 면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민족·국가와 같은 공동체(共同體)의 발상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개성에 따른 개성적(個性的) 발상이다. 그리고 이는 주체(主體)로서의 발상과 객체로서의 발상이 있을 수 있다. 전자는 한국인(韓國人)의 발상과 같은 것이고, 후자는 한국어(韓國語)의 발상과 같은 것이다. 이 책에서는 발상의 이러한 너댓 가지 국면을 아울러 다루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유형적 문체, 개성적 문체, 공통적 발상, 개별적 발상에 대한 논의가 다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책제를 “한국인과 한국어의 발상과 표현”이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책은 네 장(章)으로 이루어졌다.

제1장 “언어문화의 발상과 표현의 원리”는 우선 “발상(發想)”의 의미를 규명하고, 다양한 발상의 국면을 살펴 표현의 원리를 제시한 것이다. 1.1.은 문자 그대로 발상과 표현의 서설로 쓰인 것이다. 그래서 “발상”이

정의되고, 기발한 발상과 표현의 실례들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흥미로운 읽을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2.와 1.3.은 공동체의 유형적 발상 및 표현(문체)을 살핀 것이고, 1.4.는 개성적 발상과 표현(문체)의 문제를 살핀 것이다.

제2장 “성어(成語)에 반영된 발상과 문화”는 본격적인 민족공동체의 유형적 발상을 살핀 것이다. 이러한 유형적 발상은 속담, 관용어, 어원, 관용적 비유 등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속담과 관용어를 중심으로 이들을 살펴보았다. 속담은 2.1.과 2.2.에서 가족관계와, 생활 주변 사물을 중심으로, 관용어는 2.3.과 2.4.에서 손과, 이목구비 관련 신체어(身體語)의 관용구를 각각 고찰하였다. 이때 일어권 및 영어권의 속담과 관용어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발상과 표현의 특성이 보다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

제3장 “발상과 수사적 표현의 함수”에서는 수사적 기법과 관련된 발상과 표현의 문제를 다루었다. 3.1.은 유형적 수사적 기법을 살핀 것으로, “열녀춘향수절가”와 동양문고본 “춘향전”의 비유를 통해 한국인의 비유의 특성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3.4.는 고전문학의 해학과 풍자를 통해 개별적 특성과 함께, 고전문학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일반적 발상과 표현의 특성을 실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3.2.와 3.3.은 개성적 발상과 표현의 관계를 살핀 것이다. 3.2.는 개별 작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인물의 형상화를 밝힌 것이며, 3.3.은 전통적인 동양문고본계 춘향전을 “고본춘향전”에서 개고자 최남선이 어떻게 개성적 표현을 하고 있는가 밝힌 것이다.

제4장 “한국어의 명명과 한자의 조자”는 언어와 문자에 대한 발상과 표현을 살핀 것이다. 4.1.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원(語源)은 유형적 발상을 살필 수 있는 대표적 영역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어 어휘의 명명(命名)과 발상의 관계를 심도 있게 살폈다. 특히 발상의 기본으로서, 감각 곧 오관(五官)과 관련시켜 어원을 유형화하여 고찰하였다. 4.2.와 4.3.은 한자의 조자(造字)와 발상 그리고 한국어 어휘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한자는 문자인 동시에 한어(漢語)다. 그리고 이 한자어는 우리말 어휘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한자의 조자 과정, 말을 바꾸면 어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말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도가 꺾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한자의 조자(造字)와 발상, 그리고 우리말 어휘와의 관계를 살폈다. 4.4.는 언어유희인 수수께끼, 그 가운데도 한국과 중국의 파자(破字) 수수께끼를 살핀 것이다. 수수께끼는 독특한 발상의 언어 표현이다. 이는 유형적 발상을 이해하게 하는가 하면, 흥미를 자아내기도 하여 언어교육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책은 이렇게 한국인의 언어와 발상과 표현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언어는 객관적인 단순한 기호가 아니다. 이는 문화를 반영한다. 그것도 특정한 민족의 문화로 포장된 기호다. 한국인의 발상과 표현은 이러한 특정한 문화 기호로 포장된 산품(產品)이다. 따라서 이러한 산품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正體性)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교육에 의해 후대에 계승되도록 한다. 우리 나름의 발상과 표현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하고, 또한 이러한 한국적 발상과 표현을 누리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라 마지않는다.

2014년 8월 1일

沙平書室에서 南川 적음

제1부 언어문화의 발상과 표현의 원리

제1장 한국인의 발상과 표현 서설 15

1. 서언 _ 15
2. 발상과 구성 및 표현 _ 18
3. 기발한 발상과 표현 _ 24
4. 수사와 명명, 그리고 조자(造字) _ 32
5. 길어 _ 41

제2장 비교를 통해 본 한국어의 발상과 표현 43

1. 서언 _ 43
2. 행위에 관한 표현 _ 44
3. 감정·심정에 관한 표현 _ 60
4. 길어 _ 66

제3장 한·일·영어권 사물에 대한 발상과 이미지 69

1. 서언 _ 69
2. 가족에 대한 발상과 이미지 _ 70
3. 안면에 대한 발상과 이미지 _ 85
4. 음식물에 대한 발상과 이미지 _ 100
5. 길어 _ 106

제4장 “황진이” 소설의 발상과 표현 111

1. 서언 _ 111
2. 황진이의 생애와 관련된 기록 _ 113
3. 패설 자료와 소설의 구성 형식 _ 117
4. 패설 자료와 소설의 구성 내용 _ 123
5. 허구와 “황진이” 소설의 구성 _ 132
6. 길어 _ 138

제2부 성어(成語)에 반영된 발상과 문화

제1장 한·일 속담에 반영된 가족 관계 145

1. 서언 _ 145
2. 한국 속담에 반영된 가족관 _ 146
3. 일본 속담에 반영된 가족관 _ 162
4. 결어 _ 176

제2장 한·일·영어 속담 표현의 발상과 이미지 181

1. 머리말 _ 181
2. 속담의 발상과 표현 _ 183
3. 맺는 말 _ 203

제3장 “손” 관련 관용어의 발상과 표현 207

1. 서론 _ 207
2. “손”과 관련된 관용어 _ 208
3. 결어 _ 228

제4장 이목(耳目) 관련 관용어의 발상과 표현 231

1. 서언 _ 231
2. 언어권 간에 공통되는 관용어 _ 233
3. “귀” 관련 관용어의 유형과 특성 _ 239
4. “눈” 관련 관용어의 유형과 특성 _ 247
5. 결어 _ 261

제3부 발상과 수사적 표현의 함수

제1장 비유에 반영된 한국인의 발상 267

1. 서언 _ 267
2. 열녀춘향수절가의 비유 _ 268
3. 동양문고본 춘향전의 비유 _ 285
4. 결어 _ 310

제2장 소설 상의 인물 “황진이”의 형상화 315

1. 서언 _ 315
2. 패설에 반영된 황진이의 인물 _ 317
3. 황진이의 인물과 이의 형상화 _ 321
4. 결어 _ 339

제3장 동양문고본계 “고본춘향전”의 발상과 표현 343

1. 서언 _ 343
2. 경판본계 장편 춘향전의 해제 _ 345
3. “고본춘향전”의 발상과 표현의 특성 _ 347
4. 결어 _ 371

제4장 고전에 반영된 한국인의 해학과 풍자 375

1. 글머리에 _ 375
2. 풍자와 해학적 표현의 실제 _ 376
3. 결어 _ 397

제4부 한국어의 명명과 한자의 조자(造字)

제1장 한국어의 어원과 발상과 명명 401

1. 서언 _ 401
2. 시각에 따른 발상과 명명 _ 402
3. 기타 감각에 따른 발상과 명명 _ 427
4. 결어 _ 430

제2장 한자의 조자와 한국어의 발상 433

1. 서언 _ 433
2. 한자의 조자 방법 _ 435
3. 조자에 반영된 발상과 한국어 _ 438
4. 결어 _ 468

제3장 문자와 언어에 대한 발상의 허실 471

1. 서언 _ 471
2. 조자와 한국어 어휘의 명명 _ 472
3. 결어 _ 498

제4장 한·중 파자 수수께끼의 원리와 실제 501

1. 서언 _ 501
2. 수수께끼의 종류와 글자 수수께끼 _ 502
3. 한국의 파자 수수께끼의 유형과 실제 _ 509
4. 중국의 측자 수수께끼의 유형과 내용 _ 527
5. 결어 _ 532

사항 찾아보기 | 535

조자(造字) 풀이 찾아보기 | 544

저자 소개

박 갑 수

서울대 명예교수, 연변대 과기학원 겸직교수
일본 天理大學, 筑波大學, 중국 洛陽外國語大學 초빙교수 역임
한국어 세계화재단 이사 역임
한국어능력시험 자문위원장 역임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상임대표 역임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이사장
국어교육학회·이중언어학회·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고문
논저: “현대문학의 문체와 표현”
“고전문학의 문체와 표현”
“일반국어의 문체와 표현”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성찰”
“한국어교육의 원리와 방법”
“한국어교육과 언어문화 교육”
“재외동포 교육과 한국어교육” 외 다수.

한국인과 한국어의 발상과 표현

초판 인쇄 2014년 8월 1일

초판 발행 2014년 8월 8일

지은이 박갑수

펴낸이 이대현

편 집 이소희

펴낸곳 도서출판 역락

서울 서초구 동광로 46길 6-6 문창빌딩 2층

전화 02-3409-2058(영업부), 2060(편집부)

팩시밀리 02-3409-2059

이메일 youkrack@hanmail.net

등록 1999년 4월 19일 제303-2002-000014호

ISBN 979-11-5686-069-3 93710

정 가 38,000원

• 파본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 CIP2014022622)